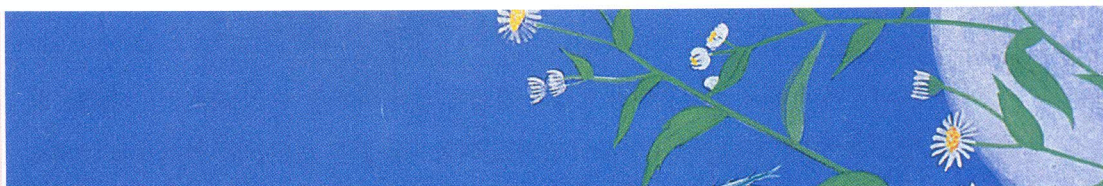


책을 펴내며	5
저자의 말	7



I.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 해방에서 1960년대까지의 한국문학

제1장	서정의 세계와 참여의 언어	15
	1. 서정주, 「국화(菊花) 옆에서」	
	2. 김춘수, 「꽃」	
	3. 김수영, 「눈」	
	4.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제2장	해방과 운명 앞에서	25
	1. 이태준, 「해방 전후」	
	2. 김동리, 「역마」	
제3장	이념의 무게와 일상의 세계	39
	1. 최인훈, 「광장」	
	2. 김승옥, 「역사(力士)」	
제4장	1960년대의 비평·희곡·수필	53
	1. 김우중, 「유적지의 인간과 그 문학」	
	2. 이근삼, 「제18공화국」	
	3. 이어령, 「폭포와 분수」	

II. 민족현실의 문학적 형상화

I 1970년대의 한국문학

제5장 사회시의 위력과 순수시의 깊이 71

1. 고은, 「화살」
2.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3. 천상병, 「귀천(歸天)」
4. 김종삼, 「어부(漁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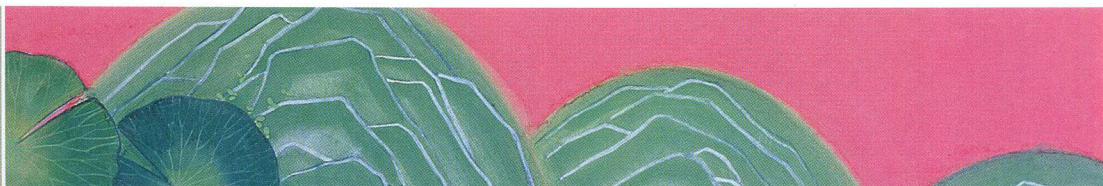
제6장 분단 서사와 개발의 그늘 85

1. 황석영, 「한씨 연대기」
2.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제7장 1970년대의 비평·희곡·수필 99

1.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2. 이장백, 「파수꾼」
3. 피천득, 「인연」





Ⅲ. 민중과 역사의 만남

Ⅰ 1980년대의 한국문학

제8장 민중지향성과 해체정신 117

1. 신경림, 「가난한 사랑노래」
2. 곽재구, 「사평역(沙平驛)에서」
3.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4. 이성복, 「남해금산」

제9장 세태를 지나 시대를 넘어 129

1. 박완서, 「해산 바가지」
2. 임철우, 「직선과 독가스」

제10장 역사를 가로지른 대하소설의 성취 143

1. 조정래, 「태백산맥」
2. 박경리, 「토지」

제11장 1980년대의 비평·희곡·수필 159

1. 유종호, 「거짓 화해의 세계」
2. 오태석, 「부자유친」
3. 김현, 「두꺼운 삶과 얇은 삶」

IV. 탈이념의 현실과 내면의 언어

I 1990년대의 한국문학

제12장 내면성의 탐구와 상상의 유연성 175

1. 안도현, 「연탄 한 장」
2.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3.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4. 김경주, 「먼 생」

제13장 여성 정체성과 내면의 재발견 187

1. 오정희, 「옛우물」
2. 신경숙, 「감자 먹는 사람들」

제14장 개인의 고립과 소외의 서사 201

1. 김영하, 「바람이 분다」
2. 박민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제15장 1990년대의 비평·희곡·수필 215

1. 최원식,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회통」
2. 이만희,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3.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